

## 논제1

제시문 (가),(다),(나)는 모두 죽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지 측면에서 세 제시문은 차이를 보인다. (가)는 죽음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특수성이라 말한다. 그렇기에 죽음을 인지하는 인간들은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만들었다. 이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외의 다른 동물들은 죽음에 생각하지 않으며 기피하고 무시한다.

제시문 (나)는 죽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고릴라 무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카루스는 죽은 마체사를 때리고 민다. 심지어 마체사 시체 위로 뛰어 내리기 까지 한다. 파피 또한 마체사의 몸을 밀고 때리며 마체사의 반응을 살핀다. 무라하는 마체사의 털을 골라주기까지 한다. 이 모든 행동들은 마체사의 죽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증거이다. 그렇기에 고릴라들은 죽은 마체사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다)는 죽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죽음을 공포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인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는 유사하지만, 죽음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죽은 자를 계속 자신의 주변에 머물게 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죽은 자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매장하는 것이다. 반면 (나)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죽은 자들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최초의 자연으로 해체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죽은 자를 땅에 매장하는 것이다.

## 논제2

(라)에 제시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을 접할 때 죽음을 쉽게 떠올리지 않는다. 실험 1은 배설물과 관련된 말에 대한 실험이고, 실험 2는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결과를 보았을 때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할 수 있는 단어의 차이와, 실험 결과의 차이가 유사하므로, 두 실험 사이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실험 1과 실험 2 모두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을 접한 갑 집단이 그렇지 않은 을 집단보다 죽음에 대해 덜 연상한다는 공통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를 (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음과 배설물은 전혀 관련이 없다.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과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연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나)에 의하면 죽음과 배설물은 관련이 있다. 죽음의 결과는 악취나는 부패이다. 이는 악취나는 배설물과 연결된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 하며 기피한다. 그렇기에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악취나는 부패가 떠올라 죽음에 대한 연상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죽은 뒤에도 삶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이승과 저승에 대한 생각에서 알 수 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승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저승에서의 삶이 계속 되기에 죽음이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의 입장에서는 배설물과 죽음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의 실험에 대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배설물과 관련된 말과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인간이 죽음에 대한 연상이 어려워진 것은 단순히 죽음과 배설물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